

朝鮮王朝의 王妃法服에 관한 研究

洪 柳 那 喜 英 卿

<目 次>	
I. 序 論	A. 首飾・面紗
II. 高麗王朝의 賜與王妃冠 服制	B. 翟衣・別衣・內衣
III. 朝鮮前期의 王妃冠 服制	C. 蔽膝・大帶・綬・霞帔・裳
A. 賜與王妃冠 服制	D. 玉帶・佩玉・圭
B. 國造王妃冠服	E. 襪・舄
IV. 朝鮮後期の 王妃法 服制	V. 結 論

I. 序 論

法服이란 正服을 의미하는 것으로 王妃의 法服은 王의 冕服에 대응하는 大禮服을 말한다. 우리나라 王妃法服에 관한 것으로는 高麗 31代 恭愍王 이후 大韓帝國에 이르기까지의 문헌기록이 있으며, 유물로는 純宗皇帝妃 純貞孝皇后 尹氏의 翟衣가 세종대학에 소장되어 있고 英親王妃가 입었던 翟衣가 동경국립박물관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王妃法服에 관한 研究는 주로 實錄을 통한 明으로부터의 賜與관계와 大韓帝國 光武 元년에 제정된 深青色 翟衣制를 中心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朝鮮朝 王妃法服制를 확실히 하기 위해 高麗末 이후 明으로부터의 賜與관계와 그 내용을 살펴보고, 나아가 朝鮮後期 國造法服制를 고찰해 보기로 하였다. 특히, 「嘉禮都監儀軌」, 「國婚定例」, 「尙方定例」에 나타난 條目과 「國朝續五禮儀補」의 王妃禮服 내용을 비교 적용하여 壬辰倭亂, 丙子胡亂 등의 戰亂 이후 遺物의 失真에 따라 推考된 法服의 형성과정과 규모를 밝히고자 한다.

朝鮮朝의 王妃法服과 그 附隨物은 전하는 유물은 물론 그림조차 없어 부득이 文獻을 통해 고찰하였다.

II. 高麗王朝의 賜與王妃冠服制

上代社會의 王妃服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文獻에 밝혀져 있는 것도 없고, 繪畫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 알 길이 없다. 「三國史記」色服條에 統一 新羅時代에 唐의 制度로 개혁하여 그 衣冠이 中國 것과 같게 되었다 하였고, 興德王服飾 禁制에서 보더라도 여기에 나열된 服飾에는 唐制가 많이 가미되어 있으나 唐 后婦冠服의 翟衣를 新羅王妃가 착용하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¹⁾

高麗時代에 와서 「高麗圖經」에 王妃服은 紅色이고 繪繡를 놓았다고 하여, 宋 后婦服飾을 연상하게 하기는 하나 확실치 않고 실제로 翟衣가 賜與된 기록은 고려말에 와서 보인다.

恭愍王 19年 5월에 明 太祖의 孝慈皇后에게서 王妃冠服을 사여받았으니²⁾, 이를 宋 命婦一品冠服制와 明의 洪武元年定 命婦一品冠服制에 비교하여 보면 표 1과 같다.

1) 柳喜卿(1976), “翟衣考”, 「家政大學教授 論文集」(서울: 이대출판부), p. 189.

2) 「高麗史」志卷二十六 輿服.

〈표 1〉 高麗朝 賜與王妃冠服의 宋明制와의 비교

宋 命婦一品服	高麗 王妃服	明 洪武元年定 命婦一品服
冠 花釵冠皆施 兩博鬢寶鈿飾	冠 飾以七翟二 鳳花釵九樹小 花如大花之數 兩博鬢九鈿	冠 花釵九樹兩 博鬢九鈿
翟衣 青羅繡爲 翟編次於衣及 裳	翟衣 青質 繡 翟九等	翟衣 繡翟九重 (紫色)
素紗中單 黼領 朱縹襖通用羅 縠	素紗中單 黼領 羅縠爲緣以紅 色	素紗中單 黼領 朱縠縹襖裾
蔽膝 隨裳色以 縠爲領緣加文 繡重翟爲章二 等	蔽膝 如裳色以 縠爲領緣繡翟 二等	蔽膝 隨裳色以 縠爲領緣加文 繡重翟章二等
大帶 革帶 佩綬 青襪 烏	大帶 隨衣色 革帶 金鈎釧 佩綬 青襪 青烏	大帶 如衣色 金革帶 佩綬 青襪 青烏

출처 : 「宋史」 志卷 154.

「高麗史」 志 26.

「明史」 卷 67 志 10.

〈표 1〉에서 볼 때 恭愍王代에 賜與된 王妃冠服은 宋의 命婦一品服과 합치됨을 알 수 있다. 이 때는 明에 있어서도 초창기이니 만큼 定制가 없었고, 다만 前朝의 舊制와 唐, 宋을 참작하여 洪武 元年 學士 陶安의 建議에 의하여 制定되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수차에 걸쳐 개정된

〈표 2〉 朝鮮前期 賜與王妃冠服의 비교

太祖 3年	太宗 3年	文宗 即位年	世祖 2年	睿宗 元年	成宗 元年	成宗 12年	中宗 13年	宣祖 36年
七翟二鳳冠	珠翠七翟冠	珠翠七翟冠	珠翠七翟冠	珠翠七翟冠	珠翠七翟冠	珠翠七翟冠	珠冠	珠翠七翟冠
	大衫(紅) 霞帔(靑) 鈿花金墜頭	大衫(紅) 霞帔(靑) 鈿花金墜子 背子(靑)	大衫(紅) 霞帔(靑) 鈿花金墜子 背子(靑)	大衫 霞帔 鈿花金墜子 背子	大衫 霞帔 鈿花金墜子 背子	大衫 霞帔 鈿花金墜子 背子	大衫 霞帔 鈿花金墜子 背子	大衫 霞鈿 鈿花金墜子 背子
		團衫 襖 裙 象牙笏	團衫 襖兒 裙 象牙女笏	團衫 襖兒 裙 象牙女笏	團衫 襖兒 裙 象牙女笏	團衫 襖兒 裙 象牙女笏	團衫 襖兒 裙 象牙女笏	團衫 襖子 裙 象牙女笏

3) 金東旭(1979), 「增補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 亞細亞文化社), p. 241.

4) 柳喜卿(1976), p. 187.

을 볼 수 있다.³⁾

III. 朝鮮前期의 王妃冠服制

A. 賜與王妃冠服制

朝鮮前期의 王妃法服은 明을 통한 賜與冠服制에 의한 것이었다.

王妃服賜與는 新王 即位때마다 誥命과 함께 王冕服과 더불어 있거나, 또는 王妃가 들어서는 대로 奏聞使편에 있었다.⁴⁾

조선에서는 14번의 王妃冠服賜與가 있었고 丙子胡亂으로 조선이 淸에 굴복하기 전까지 明으로부터 각 王代마다 대부분 王妃服을 賜與받았다.

「實錄」에 나타난 賜與王妃冠服의 物目を 〈표 2〉에서 비교해 보면 制式에 별차가 없는 것이었으며 明의 制度가 확립되어 감에 따라 체계있게 賜與되어 文宗即位年의 것이 定例로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文宗 即位年 賜與物目を 통해 朝鮮朝 賜與王妃服의 윤곽을 살피기로 하겠다.

文宗即位年 六月 甲戌

王妃

珠翠七翟冠一頂 金簪金翟寶鈿花結子等件全
鈿花金墜子一箇

各色紵絲紗羅 衣服二套 計七件

一套四件

大紅紵絲大衫一件, 福靑紵絲綵繡圈金翟鷄
袴子一件, 靑線羅繡金翟鷄霞帔一副, 象牙
笏一枝

一套三件內

大紅織金雲肩海棠四季花紵絲團衫一件, 翠藍暗鈿花紵絲襖一件, 栢枝綠暗鈿花紵絲裙一件

沈香色禮服匣一座 護箱等件全⁵⁾

여기서 大衫, 妃子, 霞帔, 女笏은 王妃禮服이 되는 것이며 團衫, 襖, 裙등은 王妃常服이 되는 것이다.

이 제도가 明의 어느 品級에 해당하였는가를 알기 위해 「大明會典」을 본 즉, 永樂 3年(1403년)에 改定된 親(郡)王妃冠服은 九(七)翟冠, 大紅色 大衫, 雲霞鳳(翟)文이 金繡된 深青色 霞帔, 鳳(翟)文을 새긴 金墜子, 桃紅色바탕에 團鳳(翟)文을 金繡한 四袂襖子 즉 褙子, 玉穀圭, 玉革帶, 綬, 玉佩로 賜與王妃服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洪武 26年(1393)에 개정된 命婦一品服을 보면 眞紅色 大袖衫, 深青色 바탕에 雲霞翟文을 한 霞帔와 褙子, 鍍花金墜子, 象牙笏⁶⁾로, 우리나라에 賜與된 王妃冠服은 明의 命婦一品服에 해당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B. 國造王妃冠服

朝鮮王朝 언제부터 王妃法服을 國內에서 製造했는지 알지 못한다. 다만 「實錄」에 나타난 바에 의하여 世宗朝에 法服이 제작되지 않았나 추측된다.

世宗年間에는 王妃服賜與가 없었는데 世宗 28年 3월에 世宗妃의 大歛時 命服을 사용하고 있다.⁷⁾ 또 文宗 即位年 3월에 世宗의 大歛時 冕服을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논의가 있었는데, 賜與된 冕服 2件과 本國에서 만든 것이 1件 祭服이 1件있는데 世宗이 欽賜된 冕服의 모양을 본 떠 萬世에 전하고자 한 것이라 하였다.⁸⁾

이로써 보면 世宗이 冕服을 본뜰 때 王妃의 命服도 冕服에 대응하는 賜與王妃冠服을 본 떠 만들었을 것이며, 따라서 世宗때 제작한 命服은 大衫일 것이라 추측된다.

賜與王妃冠服制에서 살핀 바와 같이 世宗이후

에는 각 王代마다 王妃冠服을 賜與받았다.

그 후 宣祖 35年 7월에 王妃冠服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비가 있었다.

仁穆王后의 嘉禮를 맞아 都監에서 鞠衣를 入內하였으나 大帶가 없이 嘉禮都監에서 上啓하기를 “翟衣의 制는 詳考할데가 없다. 다만 大明會典에 의거하면 大衫에는 大紅을 쓰고 霞帔는 深靑을 바탕으로 하여 紵絲紗羅를 隨用한다. 四袂襖子 즉 褙子는 桃紅色이고 鞠衣는 靑色에 紵絲紗羅를 아울러 隨用한다. 그리고 黃大帶는 쓰지 아니하고 靑線羅로 이를 하는데 緣이 있다. 或紅羅를 쓰기도 한다. 王穀圭, 玉革帶에 花采의 綬를 맺고 玉佩를 달고 靑襪 靑舄을 하여 具備한다. 이로 보면 前日 明나라에서 欽賜받은 翟衣에 미비한 것이 많고 賚來使臣도 이를 미처 覺察하지 못하였다. 만약 玉革帶, 佩綬, 襪舄을 갖추려면 반드시 九翟冠을 한 연후에 其制를 바야흐로 갖추어 터인데 이제 즐지에 갖추기 어렵다. 五禮儀에 翟衣에 首飾을 加한다는 글이 있으나 首飾은 이미 國俗을 좇아 마련하고 翟衣위에 다만 大帶를 가지고 行禮할 수 있는가. 會典의 親王妃 禮服條에 大帶는 衣色에 좇는다고 있으니 마땅이 이에 의하여 마련해야 한다”하고 있다.⁹⁾

위에서 임진왜란으로 인해 유물이 손실되어 왕비예복에 대해 논란하는데 大衫의 制를 翟衣라 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大衫制를 翟衣라고 한 것은 賜與받은 褙子에 金翟鷄의 繡가 있었으므로 翟衣制로 알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여하튼 임란후 宣祖妃 仁穆王妃의 嘉禮에는 國俗化된 首飾에 鞠衣를 만들어 입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宣祖 36年 5월에는 仁穆王妃에게 明에서 誥命과 함께 翟冠, 冠服등을 賜與하였다.¹⁰⁾

IV. 朝朝後期の 王妃法服制

壬辰倭亂이후 清朝가 서자 光海君은 明과 淸

5) 「文宗實錄」即位年 八月 甲戌.

6) 「大明會典」, 卷六十一.

7) 「世宗實錄」世宗 28年 3月 甲午.

8) 「文宗實錄」即位年 3月 丁未.

9) 柳喜卿(1976), p. 192.

10) 「宣祖實錄」36年 5月 庚申.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였으나 仁祖는 親明정책을 취하여 두차례나 淸의 침입을 받게 되었으니 丁卯胡亂과 丙子胡亂이 그것이다. 두차례의 胡亂을 겪으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된 思潮는 慕華思想이니 倭亂을 겪으면서 커지고 있던 崇明的 경향은 排淸의 경향과 表裏가 되어 갈수록 굳어졌다. 朝鮮은 武力에 있어서 만주족을 대적하지 못하므로 표면상으로는 부득이 事大의 禮로 대하였으나 內心으로는 胡虜라 하여 경시하였다.¹¹⁾

그리하여 仁祖 17年 6月 辛亥에는 仁祖繼妃 趙氏에게 淸나라에서 誥命이 와서 中殿이 親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親授하지 않았다.¹²⁾ 이렇게 淸의 禮制를 따르기 싫어한 朝鮮은 前에 翟衣라고 일컬어 왔던 大衫制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大明會典」에 의거하여 새로운 翟衣制를 만들어 내었다.

朝鮮朝 「嘉禮都監儀軌」중 현존하는 18例 <표 3>을 中心으로 朝鮮後期 王妃法服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역대 「嘉禮都監儀軌」에서 法服制度를 알기 위해 法服만을 발췌한 것이 <표 4>이다.

昭顯世子 嘉禮時 法服制는 鴉青色 翟衣와 大紅色 大衫에 霞帔, 佩玉, 赤烏, 襪로 구성되어 있으며¹³⁾, 仁祖 嘉禮時에는 大紅色 大衫, 鴉青色 背子, 霞帔, 裙, 玉帶, 佩玉, 大帶, 青玉圭, 赤烏襪로 구성되어 있다.¹⁴⁾ 즉 인조때는 玉帶, 大帶, 綬, 袂裙이 첨가되었고 소현세자때 있었던 翟衣가 없어지고 대신 褙子 1件이 보인다. 따라서 소현세자 가례시의 翟衣란 褙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도 있으나 옷감의 所用치수의 차가 크므로 확실치 않다. 한편 인조 가례시에 翟衣란 항목에 大衫 褙子를 포함한 부수물이 포괄된 점으로 미루어 大衫 褙子の 法服制를 翟衣라 통칭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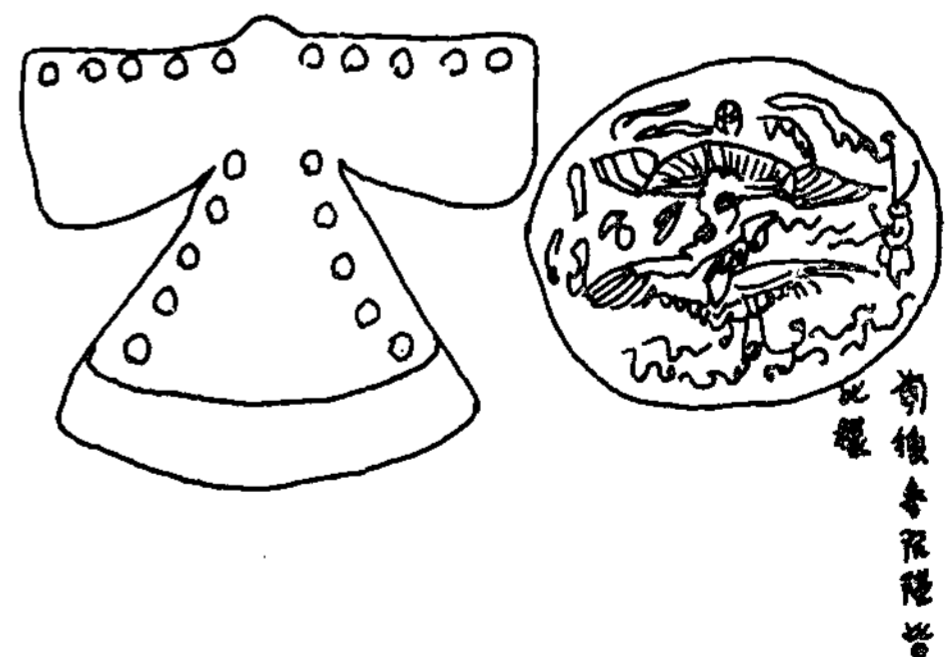
소현세자 「儀軌」에는 “如貫子繡36片”이란 내용이 있으며, 인조 「儀軌」에도 <그림 1>과 함께 “前後36皆樣”이란 글이 있는 점으로 볼 때 背子에 雙鳳紋을 繡놓은 조각 36개를 앞뒤에 붙였다고 생각된다. 大衫과 背子中 背子에 붙였다고

<표 3> 「嘉禮都監儀軌」의 목록

	書名	年代
王	(仁祖莊烈后)嘉禮都監儀軌	仁祖16年(1638)
	(肅宗仁顯后)嘉禮都監儀軌	肅宗7年(1681)
	(肅宗仁元后)嘉禮都監儀軌	肅宗18年(1702)
	(英祖貞純后)嘉禮都監都廳儀軌	英祖35年(1759)
	(純祖純元后)嘉禮都監儀軌	純祖2年(1802)
	(憲宗孝顯后)嘉禮都監儀軌	憲宗3年(1837)
	(憲宗孝定后)嘉禮都監儀軌	憲宗10年(1844)
	(哲宗哲仁后)嘉禮都監儀軌	哲宗2年(1518)
(高宗明聖后)嘉禮都監儀軌	高宗3年(1866)	
王世子	(昭顯世子) 都監儀軌	仁祖5年(1627)
	(顯宗明聖后)嘉禮都監儀軌	孝宗2年(1651)
	(肅宗仁敬后)嘉禮都監儀軌	顯宗12年(1671)
	(景宗端愨后)嘉禮都監儀軌	肅宗32年(1695)
	(景宗宣愨后)嘉禮都監儀軌	肅宗44年(1718)
	(眞宗孝純后)嘉禮都監儀軌	英祖3年(1727)
	(莊祖獻敬后)嘉禮都監儀軌	英祖20年(1744)
	(文祖神貞后)嘉禮都監儀軌	純宗19年(1819)
(純宗純明后)嘉禮都監儀軌	高宗19年(1882)	
王世孫	(正祖孝愨后)嘉禮廳都廳儀軌	英祖38年(1762)
皇太子	(純宗純宗妃)嘉禮都監儀軌	光武10年(1900)

출처: 呂春九(1976), 「王世子嘉禮研究」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4~5.

보는 것은 「大明會典」을 보면 大衫에는 문양이 없고 背子에 계급에 따라 봉이나 평을 織金 또는 金繡하였기 때문이다.



출처: 仁祖莊烈后 「嘉禮都監儀軌」

<그림 1> 法服樣

11) 李相佰(1965), 「韓國史」 近世後期編, 震檀學會(編)(서울: 乙酉文化社), pp. 16~17.

12) 高光林(1973), “翟衣에 관한 研究”, 「인천교대 論文集」, 제 8호, p. 49.

13) 昭顯世子 「都監儀軌」.

14) 仁祖 莊烈后 「嘉禮都監儀軌」.

〈표 4〉 嘉禮都監儀軌에 나타난 法服制度의 비교

	昭顯世子嬪	仁祖妃	顯宗嬪	肅宗妃 (仁敬后)	肅宗妃 (仁顯后)	肅宗妃 (仁元后)	景宗嬪 (端愨后)	景宗嬪 (宣愨后)	眞宗嬪	莊祖嬪
衣	翟衣(鴉青)		翟衣(鴉青)		翟衣(紅)	翟衣(紅)		翟衣(鴉青)	翟衣(鴉青)	
		別衣 內衣		別衣(紅) 內衣(紅)	別衣(紅) 內衣(紅)		別衣(紅) 內衣(紅)	別衣(紅) 內衣(紅)	別衣(紅) 內衣(紅)	
附隨服飾	如貫子繡36片		繡 蔽膝		繡	繡	如貫子繡36片	繡	繡	如貫子繡36片
		大帶 綬								
附隨服飾	霞帔									
		裙 玉帶	裙	裙	裳	裳	裙	裙	裙 秀玉帶	裙
附隨服飾	佩玉									
		青玉圭		白玉圭					青玉圭	
	英祖妃	正祖嬪	純祖妃	文祖嬪	憲祖妃 (孝顯, 孝宗)	哲宗妃 高宗妃	純宗嬪 (純明后)	皇太子妃 (純宗妃)		
衣	翟衣(紅)	翟衣(鴉青)	翟衣(紅)	翟衣(鴉青)	翟衣(紅)	翟衣(紅)	翟衣(鴉青)	翟衣(深青)		
		別衣(紅)								大衫(紅)
附隨服飾	繡 蔽膝		繡							
	大帶 綬									
附隨服飾	霞帔									
	裳				秀玉帶	味玉帶	味玉帶	秀玉帶	味玉帶	
附隨服飾	없음				없음					
		青玉圭				白玉圭	白玉圭	青玉圭	白玉圭	

顯宗明聖后「嘉禮都監儀軌」에는 前에 비해 別衣, 內衣, 蔽膝이 첨가되었다.¹⁵⁾ 그런데 현종 때의 翟衣와 別衣는 인조 때의 背子 大衫과 옷감 소용치가 거의 비슷하므로 그 형태에 있어서도 별차이가 없으리라 본다. 한편으로는 背子와 大衫의 명칭이 翟衣, 別衣로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이후에도 간혹 大衫 背子の 法服制가 나타나므로 단언할 수 없다. 冒緞2尺과 各色의 수실이 수용된 “繡”는 인조 「儀軌」의 “繡36片”에 해당하는 것으로 翟衣에 붙였다고 본다. 이것은

“如貫子繡”가 기재된 「儀軌」에는 아울러 “繡”가 기재 되지 않은 점에서 그런 추측을 더욱 굳힌다.¹⁶⁾

이후에도 翟衣制와 大衫 背子制가 혼용되고 있는 것을 〈표 4〉에서 볼 수 있으며, 「增補文獻備考」를 보면 肅宗 39年(1713)에 명하여 「五禮儀」와 「大明會典」을 참고로 進御할 冠服을 개정하였는데 비로소 大帶에 흰 겉과 붉은 안으로 하는 제도로 잡았다. 禮官 김우항, 민진원, 尙衣院 製造 김진원, 민진후, 박필명이 아뢰길...

15) 顯宗 明聖后 「嘉禮都監儀軌」.

16) 白英子(1977), “嘉禮都監을 통해 본 宮中法服의 變遷”, 「韓國衣類學會誌」, 1卷2號, p. 78.

(중략)…“翟衣는 「五禮儀」에 制度를 말하지 아니하였고 紅色으로 바탕을 한 것은 「大明會典」의 靑色바탕과 다른데 織紋은 평(翟)이 아니고 鳳과 같으며 앞면에 여섯等 뒷면에 아홉等인 것도 「大明會典」의 아홉等과 다릅니다. 冠에 首飾을 쓰지 아니한 것은 「大明會典」의 九翬, 四鳳, 七翟등의 冠과 다릅니다.”¹⁷⁾라고 기록하여 肅宗代에도 翟衣制가 확립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英祖는 「國朝五禮儀」에서 제외되었던 王妃法服과 嬪宮法服制度를 英祖 27年(1751) 「續五禮儀補」에 실어 妃嬪의 法服制를 확정하였다. 이 제도는 현종 때에 비해 裙이 裳으로 바뀐 점과 面紗가 포함된 점이 다르나 面紗는 이전에 衣襟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대동소이하며 「國婚定例」, 「尙方定例」에 기록되어 朝鮮末까지 사용되었다.¹⁸⁾

그러면 英祖代에 확립된 法服制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A. 首飾・面紗

1. 首飾

朝鮮前期에는 明으로부터 賜與받은 珠翠七翟冠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壬辰倭亂을 치루고 난 뒤인 仁穆王妃 嘉禮기록을 보면 翟冠을 구비못해 國俗에 따라 首飾을 마련했다고 하였다.¹⁹⁾ 宜祖36년에는 다시 翟冠과 冠服이 賜與되었으나²⁰⁾ 두차례의 胡亂으로 소실된 듯, 昭顯世子 「都監儀軌」의 嬪宮法服을 보아도 “翟冠一減”이라 하여 翟冠을 생략하였다. 그 후에도 翟冠을 사용한 기록은 없으며 다만 소현세자와 숙종인현후 「儀軌」에 각각 “髻髮60丹內”, “髻髮60丹5介”이 기록된 점으로 보아 加髻로 代用했다고 본다.²¹⁾

「續五禮儀補」에도 “妃嬪의 首飾은 대략 周禮와 같고 金粧을 더한다”²²⁾고 하여 國俗化된 首飾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2. 面紗

面紗褌 혹은 面紗布는 “공주가 결혼식 때 쓰던 금박으로 봉황무늬와 수복강령의 글씨를 수놓은 紅紗”²³⁾ 또는 “신부가 처음으로 신랑집에 갈 때 머리부터 온 몸을 쓰는 紗”²⁴⁾란 의미로 面紗란 婚禮에 쓰인 紗임을 알 수 있다.

「嘉禮都監儀軌」에는 面紗와 袂面紗가 있다. 이 중 面紗는 妃嬪法服에만 보인다. 材料는 紫的羅8~9尺으로 貼金一束5貼과 泥金3錢이 따른다. 貼金과 泥金은 面紗에 박은 鳳皇무늬, 壽福康寧등 德談을 附金한데 쓴 것이다. 이와 같은 모양은 高麗大와 梨花女大所藏品인 實物로 확인할 수 있으나 이것이 바로 法服에 사용한 面紗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袂面紗는 妃嬪 衣襟에 보이는데 걸감과 안감이 紫的紗나 羅 各十尺이며 貼金과 泥金所用은 面紗와 같다. 다만 袂面紗에는 月尔只(당기)라는 부속이 따로 있어 그 형태가 面紗와는 약간 다른 것이라 짐작된다.²⁵⁾

面紗는 양반부인의 内外用 쓰개로 쓰이기도 하였거니와 法服에 포함된 面紗는 儀禮用으로 홀으로 하고 금박을 장식하여 화려하게 꾸몄다고 본다.

B. 翟衣・別衣・內衣

1. 翟衣

翟衣의 형태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文獻은 「續五禮儀補」뿐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王妃 禮服制度

翟衣는 大紅緞으로 하되 前面의 左右가 서로 對하여 곧게 내려가고 서로 덮이지 아니하며 길이는 치마끝과 가지런하고 뒤의 길이는 치마끝에 1尺 남짓하게 지나간다. 衣의 앞뒤에 金繡한 五瓜圓龍補를 붙인다. 앞에 補아래 수놓은 圓翟을 왼쪽에 일곱 오른쪽에 일곱을 붙여서 옷단에 이르게 하고, 옷단에 있는 것을 左右에 각각 한

17) 「국역증보문헌비고」(1981), 예고4,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pp. 218~219.

18) 「國婚定例」卷之一. 「尙方定例」, 人.

19) 「宜祖實錄」35年 7月 庚申.

20) 앞글, 36年 4月 癸丑.

21) 昭顯世子 「都監儀軌」, 肅宗 仁顯后 「嘉禮都監廳儀軌」.

22) 「續五禮儀補」.

23) 이희승(1961), 「국어대사전」(서울 민중서관),

24) 李家源, 張三植(1980), 「漢字大典」(서울: 교육출판공사), p. 1665.

25) 李京子(1977), “嘉禮都監의 服飾研究”, 「服飾」, 創刊號(韓國 服飾學會), pp. 33~34.

굽이(曲) 접어서 서로 連한 것처럼 붙인다. 左右소매는 너비가 옷 앞길리와 같고 소매부리의 바깥면에도 수놓은 圓翟을 왼쪽에 아홉 오른쪽에 아홉 붙여서 그 수가 모두 51이다.

王世子嬪 禮服制度

衣는 黑緞으로 하고 衣의 앞뒤에 金으로 四爪龍補를 수 놓고 衣의 制와 繡圓翟은 王妃服과 같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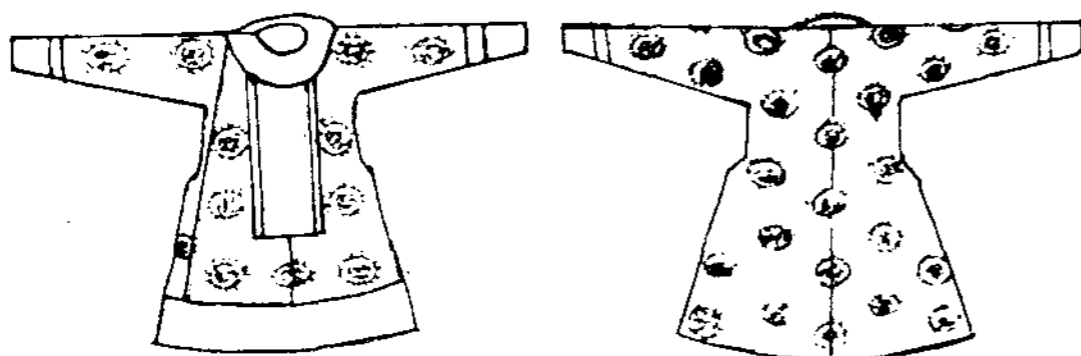
위의 내용을 中心으로 翟衣의 色, 길이 衿선, 무늬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한다.

가. 길이

“前長齊裳端後長過裳端尺餘”란 내용으로 보아 앞길리는 치마단과 가지런하고 뒷길리는 치마단보다 1尺 남짓 길었던 것을 알 수 있다.

法服의 뒤가 앞보다 길었던 것은 仁祖「嘉禮都監儀軌」에도 보이는데, 여기에는 法服에 속한 그림(그림 1)과 露衣樣이 있다. <그림 1>은 法服이며, “前後36介樣”이란 鳳紋의 繡가 있다는 점에서 背子라고 추측된다. 그런데 그림에서 옷의 下端에 마치 端처럼 표시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端은「樂學軌範」에 실린 그림(그림 2)에도 보이며 “前短後長”이란 기록으로 보아 翟衣도 이와 같이 뒤가 길고 앞이 짧은 모양일 것이다.²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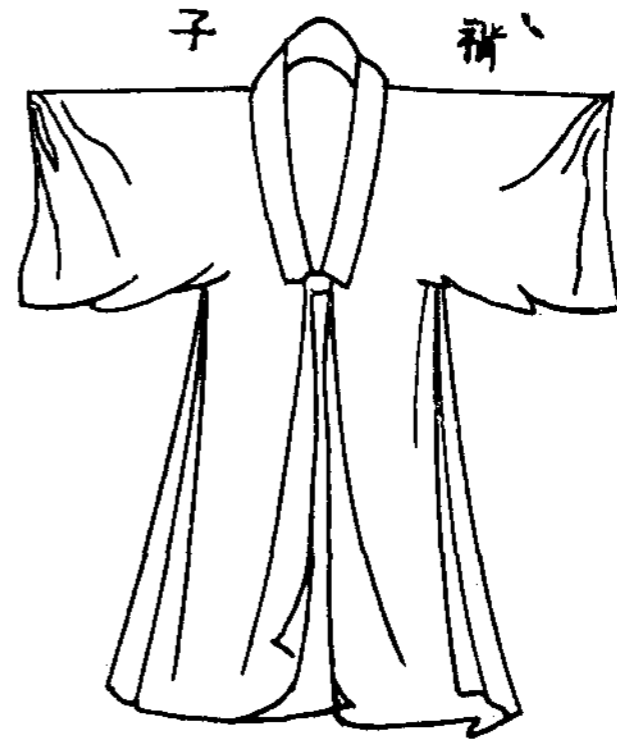
翟衣의 뒤가 앞보다 1尺남짓 길다면 원삼과 같이 옆이 트였는지, 트였다면 어느 부위부터인지도 알 수 없고, 옆선도 어느 정도 넓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림 2> 衣

나. 衿선

「續五禮儀補」에 “前面左右相對直下不相掩如背子”라 하여 앞은 여며지지 않고 左右가 곧장 내려와 배자와 같다고 하였다. 「三才圖繪」에 실린 襟子의 그림(그림 3)을 보아도 당시의 翟衣는 현재의 圓衫과 같이 앞이 곧바로 내려와 衿이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3> 襟子

한편 英祖朝「閒靜堂集」에서 背子에 대해 말하길 “長背子是 兩裾가 서로 덮이고 長袖이며 兩腋을 꿰매지 않은 것으로 오늘날 남자들의 長襦와 대략 같다. …(중략)…紀原에 말하길 소위 背子是 길이가 衫과 가지런하고 大袖인 것이 지금의 圓衫과 비슷하다. 단지 圓衫은 長袖이고 兩裾가 直垂인 것이 다를 뿐이다. 원삼보다 조금 짧게 하면 大袖禮衣가 된다.”²⁸⁾고 하여 背子는 양겨드랑이 부터 트이고 앞단이 여며진 형태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背子의 精確한 形을 알지 못하므로 翟衣가 衿이 없이 앞이 수직으로 곧장 내려온 形인지 대한제국의 翟衣같은 앞여밌인지 알 수 없다.

「嘉禮都監儀軌」에서 翟衣의 옷감 소용량을 보면 英祖朝와 大韓帝國의 翟衣가 옷감소용치수에

26) 「續五禮儀補」, 序例 卷之一, 吉禮.

「王妃翟衣; 衣以大紅緞爲之 前面左右相對直下 不相掩如背子 而前長齊裳端 後長過裳端尺餘 衣前後貼金繡五爪圓龍補 前補下貼繡圓翟 左七右七以至衣端 而在衣端者 左右各一曲 貼如相連 後補下貼繡圓翟左九右九 以至衣端 而又貼一於衣端之中如相連 左右袂廣齊衣之前長 袂口外面亦貼繡圓翟左九右九 其數共五十一。」

「王世子嬪翟衣; 衣以黑緞爲之 衣前後貼金繡四爪圓龍補 而衣制與繡圓翟 同王妃服。」

27) 白英子(1977), p. 76.

28) 宋文欽, 「閒靜堂集」卷七 雜書.

「其所謂長背子 引爲長袖兩裾相掩 兩腋不縫者 與今丈夫長襦略同…(中略)…紀原所謂「背子身與衫齊而大袖者 即今之圓衫 但圓衫長袖而 兩裾直垂爲異 因圓衫而稍短之 則爲大袖禮衣」.

있어서 거의 같다.²⁹⁾ 그렇다면 英祖때의 翟衣도 그 옷감 소용량으로 보아 대한제국의 적의와 비슷하지 않았나 생각되나 純宗, 純明后의 圓衫 옷감 소용량도 35尺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면 「가례도감의제」의 옷감량은 여유를 두어 준비한 것으로 옷감소용량으로 翟衣의 형태를 추측하기엔 부족하다.

다만 「續五禮儀補」에서 앞이 곧바로 내려와 여머지지 않음이 背子와 같다고 하였으므로 깃과 섹부분의 모양이 활옷과 비슷하지 않았나 추측하는 바이다.

다. 襖

大韓帝國의 翟衣는 세종대학의 유물을 볼 때 深靑에 紅色襖을 두르고 襖에는 龍을 織金하고 있다. 또 「皇太子 嘉禮都監儀軌」에 “續次大紅織金雲鳳紋匹緞1匹”이 명시되어 皇后는 龍, 皇太子妃는 鳳을 織金한 襖을 들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朝鮮王朝 翟衣에는 襖을 두른 기록이 없고 다만 翟衣 소용내역에 “翟鷄畫成次泥金5錢”이 있으니 襖부분에 翟鷄를 附金한 것으로 보인다.

라. 무늬

法服에 鳳紋樣의 繡를 하였음은 仁祖 「嘉禮都監儀軌」의 그림(그림 1)과 “如貫子繡36片”이란 기록으로 알 수 있다.

「續五禮儀補」에서 王妃法服에 圓翟을 51개 수 놓았다고 하였고 王世子嬪의 法服에도 繡圓翟은 王妃와 같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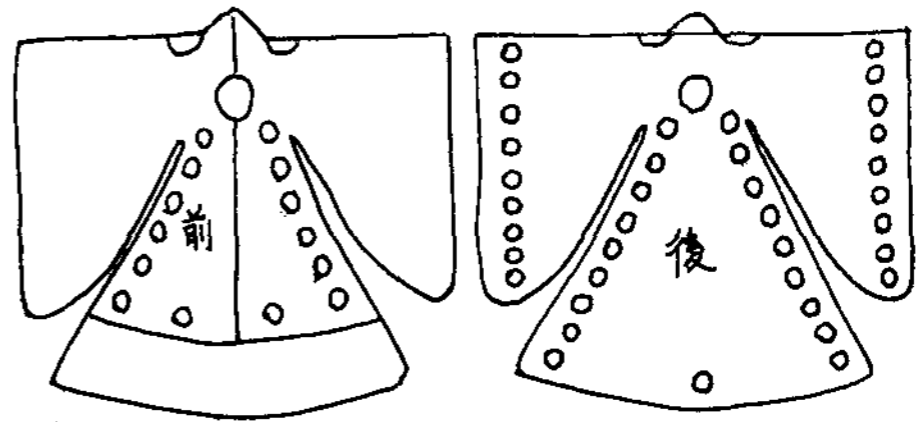
궁중발기증 高宗 明聖后의 「병인가례시옷던 단자」를 보면 “다홍금선, 덕의 덕티오십일”³⁰⁾이라고 쓰여 있다. 여기에서 雙鳳紋 혹은 翟雉라고 하는 수를 36개 혹은 51개 翟衣에 놓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嘉禮都監儀軌」를 보면 大衫 背子制에는 “如貫子繡36片”이 기록되어 있고 翟衣制에는 王妃는 “繡 大紅廣的5尺5寸” 嬪은 “繡 冒緞2尺5寸”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王妃는 繡圓翟

을 51개, 嬪은 36개 놓았는지, 아니면 비빈에 관계없이 背子에는 如貫子繡36片 翟衣制에는 圓翟51개를 놓았는지 알 수 없으나, 옷감의 소용치로 미루어 보면 妃는 5尺5寸인데 반해 嬪은 2尺5寸으로 더 적게 들었으므로 王妃翟衣는 51개 王世子嬪은 36개 수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무늬의 배치는 <그림 1>로는 잘 알 수 없고 「續五禮儀補」의 내용으로 미루어 <그림 4>와 같지 않을까 생각하여 제시한다. 이것은 숙종 39년 冠服改定때 禮官등이 “織紋은 평이 아니고 鳳과 같으며 앞면에 여섯等 뒷면에 아홉等과 다릅니다”³¹⁾라고 말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圓翟의 무늬는 仁祖 「儀軌」의 그림(그림 1)과 비슷하리라 보며 이것은 翟보다는 鳳에 가까운 형태이다.



<그림 4> 翟衣의 繡圓翟 배열 추측도

마. 色

「孝宗實錄」에 明聖后(顯宗嬪) 冊禮時 冊禮都監에서 “癸亥(仁祖元年 仁祖妃冊立), 戊寅(仁祖 16年 莊烈后嘉禮) 前後冊禮에는 中殿法服인 翟衣 烏襪이 癸亥에는 黑色을 사용하고 戊寅년에는 紅色을 사용하였으니 지금은 무슨 색으로 하여야 할 것인가”하고 啓함에 孝宗은 舊例를 좇아 大紅色으로 하라고 命하였다. 그 뒤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는 都監중에도 밝혀지지 않았으나 실제로 적용된 物目單子에는 鴉靑色의 翟衣로 되어 있다.³²⁾

그런데 「嘉禮都監儀軌」를 보면 仁祖妃는 嘉禮時 大衫 背子를 입었고 大紅色의 翟衣가 처음

29) 英祖 貞純后 「嘉禮都監儀軌」.

「翟衣; 大紅鄉織 35尺, 內拱 大紅鄉織 5尺5寸, 翟鷄畫成次泥金5錢」.

純宗 純宗妃 「皇太子 嘉禮都監儀軌」.

「翟衣; 深靑色 翟紋匹緞 35尺, 內拱 大紅匹緞 5尺5寸, 續次大紅織金雲鳳紋匹緞1匹」.

30) 「병인가례시옷던 단자」 장서각 소장.

31) 「국역 증보문헌비고」, 예고4 pp. 218~219. 註 17) 참조.

32) 白英子(1977), p. 79.

사용된 것은 숙종인현후의 가례때였다.

이에 翟衣의 色은 顯宗과 肅宗代를 거치면서 大王大妃는 紫色, 王妃는 大紅, 王世子嬪은 鵝青色으로 定해지고 이것이 英祖이후 확정되어 짐을 알 수 있다.

1. 別衣・內衣

別衣와 內衣는 어떤 형태의 옷인지 문헌도 유물도 없으므로 역대 「嘉禮都監儀軌」를 보면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翟衣制에 한하여 妃嬪에 관계없이 大紅色의 別衣와 內衣가 입혀졌다.

別衣는 翟衣와 같이 袷이 35尺5寸 內拱이 5尺5寸 소용되어 홀옷이며 內衣는 袷이 14尺 內拱이 21尺 소용되어 겹옷임을 알 수 있다. 別衣는 翟衣와 袷소용치수가 같고 “翟鷄畫成次泥金”이 없으며 기록순서로 보아 翟衣와 같은 모양의 속받침옷임에 틀림이 없다. 內衣 역시 속옷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현존하는 유물에는 이에 해당할만한 것이 없다. 李京子는 그 크기로 보아서 속저고리에 가까운 옷으로 翟衣에 딸린 裳 前三後四에 대응하는 옷이라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³³⁾

그런데 翟衣制가 아닌 大衫 背子制에서는 大紅의 大衫이 쓰일 뿐 別衣와 內衣는 없다. 따라서 英祖이전에는 翟衣에 別衣, 內衣를 받쳐 입거나 背子에 大衫을 받쳐 입었고, 이것이 英祖이후 翟衣制가 확립되면서 안에 別衣 內衣를 받쳐 입는 것이 朝鮮末까지 계속되었다고 본다.

純宗의 2번째 가례기록인 「皇太子 嘉禮都監儀軌」에서는 深青色 翟衣에 玉色 中單이 있음에도 大衫, 別衣, 內衣가 소용됨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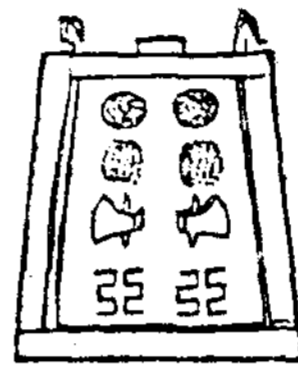
C. 蔽膝・大帶・綬・霞帔・裳

1. 蔽膝

蔽膝은 翟衣制에 속한 것으로 大衫制가 賜與되었던 朝鮮前期에는 사용하지 않았고 朝鮮後期 翟衣를 국내에서 제작해 입으면서 폐슬도 함께 제작하기 시작했으리라 본다.

역대 「嘉禮都監儀軌」를 보면 폐슬은 顯宗 嘉禮때 처음 나타나 조선말까지 계속 보이고 있다. 尙方定例에 폐슬용으로 大紅廣的 1尺6寸, 內拱花紋紗 1尺6寸, 五色多繪一部가 소용된다고 기록되었는데 역대 「儀軌」에서도 같은 양이 소용되었다.

「續五禮儀補」에서 “王妃蔽膝은 殿下의 것과 같되 繪가 없다.”고 하였다.³⁴⁾ 이에 殿下의 蔽膝을 「國造五禮儀」에서 보면 <그림 5>과 같은 형태로 王妃의 것은 여기에 章紋만 없는 것이라고 본다.



蔽膝

<그림 5> 蔽膝(王) 경국립박물관 폐슬실측도³⁵⁾와 세종대 소장 유물을 통해 深青色바탕에 小輪花를 무늬 놓은 蔽膝의 면모를 볼 수 있다.

2. 大帶

「續五禮儀補」에서 “王妃의 大帶는 大紅緞으로 袷을 하고 白綾으로 안을 하고 綠緞으로 선을 두른다. 王世子嬪의 것은 王妃와 같다.”³⁶⁾고 하여 「大明會典」의 制度와는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嘉禮都監儀軌」를 통해 大帶에 필요한 옷감을 보면 현종때부터 순종순종비까지 폭, 색에 별차이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大帶의 형태에 대해 白英子는 「嘉禮都監儀軌」내역과 「續五禮儀補」의 내용으로 미루어 <그림 6>의 형태가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³⁷⁾

草 綠(靑)	
大	紅

(뒷면에 靑組부착)

<그림 6> 大帶 추측도

33) 李京子(1977), pp. 31~32.

34) 「續五禮儀補」, 序例 卷之一, 吉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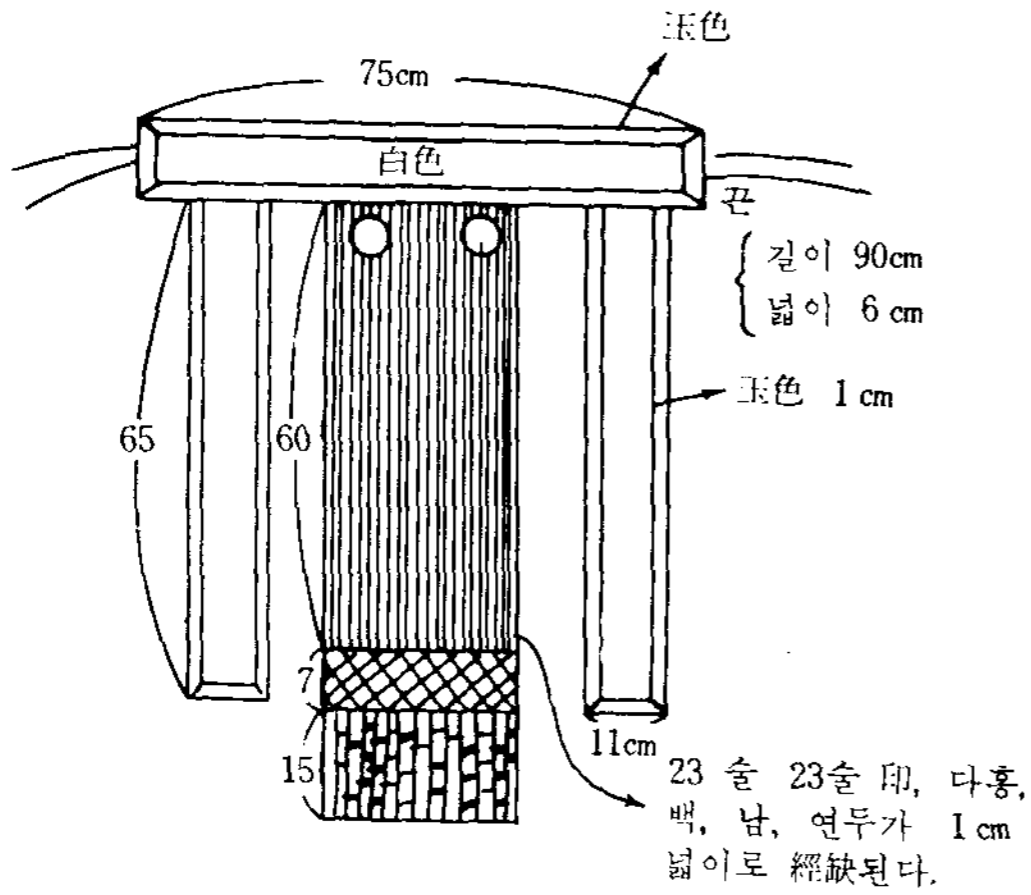
「王妃蔽膝; 蔽膝 同殿下蔽膝 而無繪... 王世子嬪 蔽膝; 蔽膝同王妃蔽膝」

35) 孫敬子(1968), 「李朝服飾小考」, 首都師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p. 88.

36) 「續五禮儀補」序例 卷之一, 吉禮.

「王妃 大帶; 帶 以大紅緞爲表 白綾爲裏 綠以綠緞... 王世子嬪 大帶; 帶 同王妃帶」.

37) 白英子(1978), “嘉禮 都監을 통해 본 法服(翟衣)의 附隨服飾과 衣襟(露衣・長衫)에 관한 研究, 「韓國衣類學會誌」2卷1號 p. 139.



〈그림 7〉 翟衣 佩玉帶

또한 任明美는 孫敬子の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翟衣 佩玉帶의 실측도(그림 7)를 大帶의 형태로 제시하였다.³⁸⁾ 그런데 동경국립박물관 소장의 佩玉帶는 길이 白, 안이 紅色이며 玉色선을 두르고 있어 文獻과는 다르다. 「增補文獻備考」에는 皇后와 皇太子妃의 大帶에 대해 「大明會典」의 내용을 그대로 실고 있으나 이 佩玉帶는 「증보문헌비고」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증보문헌비고」의 내용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으며 朝鮮朝에도 동경국립박물관 소장의 大帶와 같은 형태의 大帶가 사용되었다고 본다. 다만 그 색에 있어서 여러 문헌으로 보아 길이 紅, 안이 白色에 綠色선을 두르고 靑組가 늘어진 형이라고 보는 것이다.

3. 綬

朝鮮前期 賜與王妃冠服에 綬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仁祖 嘉禮이후부터 계속보이므로 국내에서 翟衣를 제조하면서 玉佩, 玉帶, 襪舄과 함께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嘉禮都監儀軌」를 통해 볼 때 옷감은 錦衣匹緞1尺6寸, 內拱 大紅紗2尺이 소용되었고 圓環1雙, 度金등이 소용되었다.

「續五禮儀補」에는 “王妃의 綬는 殿下의 綬와 같고 嬪의 綬는 王妃의 것과 같다”³⁹⁾고 되어 있다. 이에 「國朝五禮儀」를 보면 王의 綬는 紅花錦綬에 雙金環으로 되어 있으며 4采色으로 纁色 바탕에 白 纁 綠의 3色으로 짚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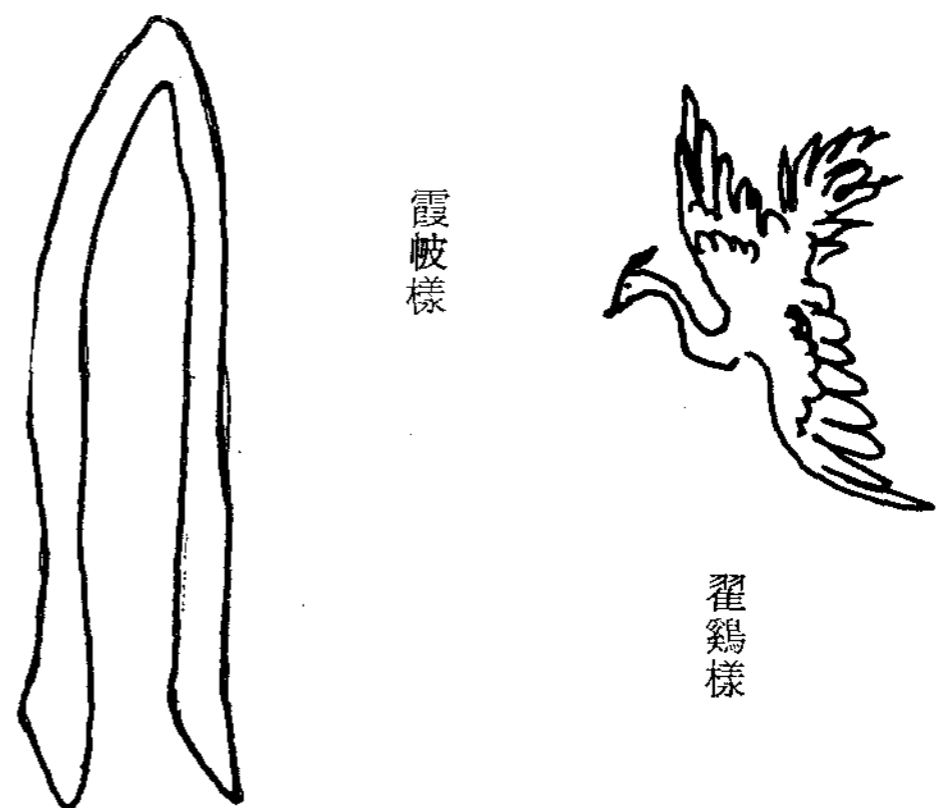
그러나 妃嬪의 綬유물은 없고 다만 대한제국의 翟衣 佩玉帶 실측도(그림 7)를 통해 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4. 霞 帔

霞帔는 긴 한쪽과 같이 되어 있어 이것을 목에 걸치되 胷背 아래위치까지 늘이고 가슴앞에서는 가지런히 치마끝까지 늘어 두폭이 겹치지 않게 墜子로 맺게 되어 있다.⁴⁰⁾

「大明會典」을 보면 霞帔는 大衫, 背子와 함께 皇后의 常服, 王妃의 禮服으로 사용되었다. 조선전기에는 靑色 바탕에 翟鷄가 있는 霞帔와 鈹花金墜子가 賜與되었는데, 이는 明의 命婦品禮服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續五禮儀補」에 “하피는 黑緞으로 겉을 하고 紅緞로 안을 하며 雲霞翟紋을 雲霞28翟紋26金繪한다.”⁴¹⁾고 되어 있어 조선후기에 와서 흑색의 하피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인조장렬후 「儀軌」에는 〈그림 8〉과 함께 “鴉靑花紋紗 霞帔一副次代冒緞陸尺以作二隻泥金二錢 畫



〈그림 8〉 霞帔樣

38) 任明美(1975), 「우리나라 翟衣의 由來와 制度에 關한 考察」, 高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p. 84.

39) 「續五禮儀補」, 序例 卷之一, 吉禮.

「王妃 綬; 綬 同殿下綬 ... 王世子嬪 綬; 綬 同王妃綬」.

40) 柳喜卿(1975), 「韓國服飾史 研究」(서울: 이대출판부), p. 146.

41) 「續五禮儀補」, 序例 卷之一, 吉禮.

「王妃 霞帔; 帔 以黑緞爲表 紅緞爲裏 以金繪雲霞翟文 雲霞二十八 翟文二十六... 王世子嬪 霞帔; 帔 同王妃霞帔」.

金翟鷄每隻拾肆式”이란 내용이 실려 있다. 즉 하피가 2隻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隻에는 翟鷄14를 金으로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大明會典」의 내용⁴²⁾과 일치하는 것으로 현재 남아 있는 유물과는 달라, 大衫 背子制에만 사용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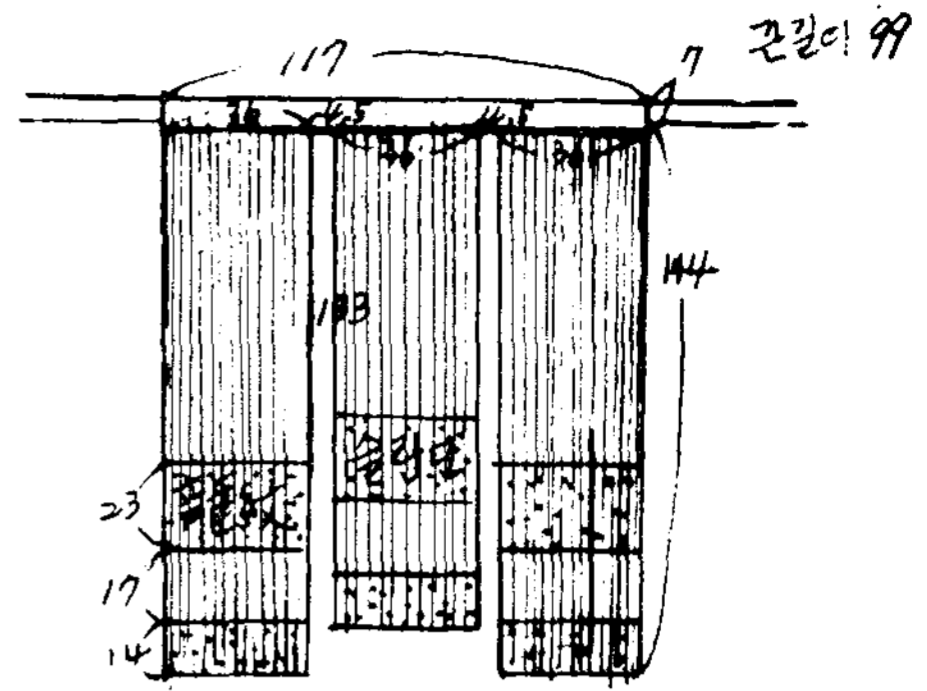
大韓帝國의 翟衣制에서는 冒緞6尺이 소용되어⁴³⁾ 朝鮮朝 王妃의 것과 동일한 양의 옷감이 쓰였다. 現 세종대학 소장의 皇后 翟衣에 딸린 霞帔의 크기는 길이 5m 나비 10.5cm이며 검은색 공단에 鳳26마리 금박 사이사이에 雲紋 금박을 찍고 분홍색 명주안을 넣어 만들었다.⁴⁴⁾ 또한 墜子를 사용하지 않고 翟衣의 좌우 고대끝과 뒷판의 補위에 고리를 하여 霞帔가 고정되도록 하였다.

5. 裳

裳은 「大明會典」에서 살펴볼 때 中國의 翟衣制나 大衫制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朝鮮朝 「嘉禮都監儀軌」나 「續五禮儀補」에는 翟衣制에 裳이 포함되어 있음을 본다.

「續五禮儀補」에 의하면 “王妃의 裳은 靑緞으로 하되 앞세폭은 짧은데 연하여 꿰매고 뒤네폭은 긴데 각각 두폭은 연하여 꿰매어서 서로 덮이게 한다. 앞뒤에 치마주름이 있고 가운데와 밑에는 織金龍(속칭 膝襪)을 벌여 붙인다. 王世子嬪의 裳은 王妃의 裳과 같고 裳의 중간아래에 織金鳳을 벌여 붙인다.”⁴⁵⁾고 한다. 翟衣가 국속화되면서 裳은 사용되었으며, 妃는 34尺 내외의 옷감이 소용되어 28尺내외의 옷감을 소용한 嬪의 것보다 치수가 큰 裳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란단에 있어서 妃는 龍紋을 嬪은 鳳紋을 금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裳의 모습은 세종대 소장 전행옷치마(그림 9)에서 볼 수 있으며, 大韓帝國에 있어서



〈그림 9〉 전행 옷치마
출처 : 손경자(1968), 「李朝服飾小考」.

는 深靑色の 翟衣에 裳은 명칭만 裙으로 바뀌었을 뿐 전과 같은 제도이고 王妃는 皇后로 王世子嬪은 皇太子妃로 승격함에 따라 裳의 치수도 「尙方定例」의 王妃 裳과 같은 34尺의 길이 소용되었다.

D. 玉帶·佩玉·圭

1. 玉帶

玉帶는 革帶에 玉을 장식한 것으로 玉革帶라고 불리운다.⁴⁶⁾ 玉帶는 皇后나 王妃의 禮服인 翟衣, 大衫制에는 속해 있으나 命婦一品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命婦一品服이 賜與된 朝鮮前期에는 사용되지 않았고 兩亂이후 국내에서 翟衣를 만들면서 사용한 듯한다.

「續五禮儀補」에 “王妃의 玉帶는 雕玉으로 하되 안은 靑緞으로 하고 金으로 鳳을 그렸으며 嬪의 玉帶는 王妃의 것과 같되 조각하지 않은 玉을 사용한다.”⁴⁷⁾고 하였다.

2. 佩玉

朝鮮은 宣祖代까지 明의 命婦一品服을 사여받아 사용했으므로 佩玉이 없었고 仁祖代의 昭顯世子 嘉禮때 부터 사용하였다.

42) 「大明會典」, 卷六十一, 命婦一品服條.

「…霞帔二條 各長五尺七寸 闊三寸二分 各繡禽七隨品級用…」.

43) 「皇太子 嘉禮都監儀軌」.

44) 白英子(1978), p.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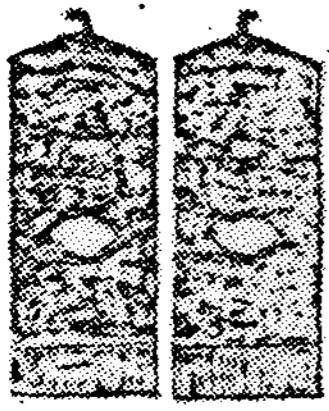
45) 「續五禮儀補」, 序例 卷之一, 吉禮.

「王妃 裳; 裳 以靑緞爲之 前三幅短而連縫 後四幅長而各二幅 連縫以相掩 前後有裝積 中下列貼織金龍〔俗稱膝襪〕… 王世子嬪 裳; 裳 同王妃裳 而裳中下列貼織金鳳」.

46) 柳喜卿(1971), 「冕服에 關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pp. 97~98.

47) 「續五禮儀補」, 序例 卷之一, 吉禮.

「王妃 玉帶; 帶 以雕玉爲之 裏以靑緞 而金繪鳳… 王世子嬪 玉帶; 帶 以不雕玉爲之 而裏以靑緞金繪鳳 同王妃帶」.



〈그림 10〉 佩玉(王) 〈그림 11〉 佩玉의 구성물

佩玉을 국내에서 제조했는지 혹은 明에서 수입하여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續五禮儀補」에 妃嬪의 佩制는 殿下의 것과 동일하다고 하였다.⁴⁸⁾ 이에 殿下의 佩玉을 보면 위에 珩(衝)이 겹쳐 있고 가운데에는 琚와 瑀가 있으며 밑에는 雙璜이 있고 雙璜 사이에는 衝牙가 있으며 또 衝牙와 雙璜 사이에는 雙滴이 있어 모두 珉玉으로 하였고 珩(衝)위에는 金鉤가 달려 있다.⁴⁹⁾(그림 10)

3. 圭

朝鮮前期에는 明으로부터 王妃冠服과 함께 象牙笏을 賜與받아 왔다. 그런데 「大明會典」을 보면 皇后에서 郡王妃까지는 玉穀圭를 사용하였고笏은 命婦一品制였음을 알 수 있다. 命婦의 象牙笏은 圓首方脚이며 길이는 周尺으로 6寸4分 두께는 1寸5分이었다.⁵⁰⁾

조선후기 國造 翟衣와 함께 쓰인 圭에 대해 「續五禮儀補」에 “王妃의 것은 白玉으로 하되 殿下의 圭와 같고 王世子嬪의 圭는 青玉으로 하되 王世子の 것과 같



〈그림 12〉 圭(玉)

다”⁵¹⁾고 하였다. 이에 「國朝五禮儀」를 보면 王의 圭는 青玉圭이며 길이는 9寸이고 王世子는 같은 青玉圭이면서 길이가 7寸이었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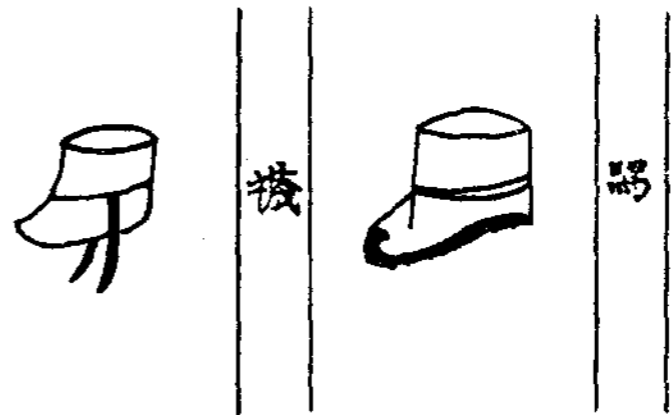
E. 襪·舄

襪은 버선이며 舄은 신을 말한다. 「隋書」禮儀志에 보면 舄은 履와 그 형상이 거의 같으나 履는 단창인데 舄은 겹창이라 하였다.⁵²⁾

「大明會典」을 보면 命婦一品服에는 綬·玉帶, 佩玉과 함께 襪, 舄에 대한 기록은 없고 「實錄」에도 襪, 舄을 사여받은 내용은 없다.

조선후기에 와서야 襪, 舄에 대한 기록이 있으니 「嘉禮都監儀軌」를 보면 王妃는 赤襪 赤舄을, 王世子嬪은 黑襪, 黑舄을 사용했으며, 赤襪에는 大紅廣的 3尺5寸 黑襪에는 冒緞 2尺5寸이 소용되었다.

「續五禮儀補」에 “王妃의 襪은 殿下의 제도와 같고 舄은 殿下의 舄과 같되 오직 舄끝에 붙고 푸른 絲花 셋을 붙인다. 王世子嬪의 襪은 黑緞으로 한다. 舄은 黑緞으로 겹을 하고 白羅로 안을 하는데 끝의 絲花는 王妃의 絲花와 같다.”⁵³⁾고 하였다. 이에 王의 襪, 舄(그림 13)을 「國朝五禮儀」에서 보면 襪은 緋色緞으로 겹을 하고 緋色絹로 안을 하였으며 舄은 緋色緞으로 겹을 하고 白色縉으로 안을 하였다.⁵⁴⁾



〈그림 13〉 襪, 舄(王)

따라서 襪은 안팎을 같은 色으로 하고 衣色에 따랐으며 舄은 겹은 衣色과 같되 안은 白色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48) 「續五禮儀補」, 序例 卷之一, 吉禮.

「王妃 佩; 佩 同殿下佩... 王世子嬪 佩; 佩 同王妃佩」.

49) 「國朝五禮儀」.

50) 「大明會典」, 卷志六十一.

51) 「續五禮儀補」序例 卷之一, 吉禮.

「王妃 圭; 圭 以白玉爲之 制同殿下圭... 王世子嬪 圭; 圭 以青玉爲之 同世子圭」.

52) 柳喜卿(1971), p. 107.

53) 「續五禮儀補」, 序例 卷之一 吉禮.

「王妃 襪; 襪同殿下襪 舄; 舄同殿下舄而惟惟端 貼紅綠絲花三, ...王世子嬪 襪; 襪以黑緞爲之 舄; 舄以黑緞爲表 白羅爲裏 舄端絲花 同王妃舄」.

54) 「國朝五禮」, 儀卷之一 祭服圖說.

V. 結 論

이상에서 朝鮮王鮮 王妃法服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高麗末 明으로부터 宋의 命婦品服에 해당하는 九等翟衣制가 賜與된 이후 朝鮮朝에서도 太祖이 후 仁祖 3年까지 王妃冠服이 賜與되었다. 이는 珠翠七翟冠과 함께 大紅色 大衫, 靑色바탕에 翟鷄가 수놓인 背子와 霞帔, 銀花金墜子, 象牙笏로 明의 命婦一品禮服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翟冠과 아울러 靑色에 翟紋이 있는 背子와 霞帔는 大衫制를 翟衣로 오인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조선전기의 大衫制는 翟衣制로 인식되었고, 한편 紅色의 大衫은 法服의 色이 紅色이란 인식을 주어 朝鮮後期 王妃翟衣의 色이 大紅으로 정해진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丙子胡亂이후 明이 망하자 朝鮮을 「大明會典」에 의거하여 王妃法服을 國內에서 제작하였으나 英祖이전까지는 背子制와 翟衣制가 혼용되었다. 翟衣制는 顯宗이후 점차 격식을 갖추어 英祖朝 「國婚定例」와 「國朝續五禮儀補」를 통해 王妃法服制度로 정리 확립되어 朝鮮末까지 준수되었다. 당시의 翟衣制는 「大明會典」에 의해 제정했다고 하였으나 明制度와는 다른 우리나라의 國俗化된 翟衣制였으며 大韓帝國 光武元년에 정한 深靑色 翟衣制와도 차이점을 갖고 있다.

朝鮮後期の 翟衣制는 國俗化된 首飾에 翟衣, 內衣, 別衣, 蔽膝, 大帶, 綬, 霞帔, 裳, 玉帶, 佩玉, 圭, 襪, 烏, 面紗로 구성되어 있다.

翟衣는 王妃의 大紅, 王世子嬪은 鴨靑色이 사용되었으며 앞보다 뒤가 1尺 남짓 길고, 앞이 여머지지 않고, 襟을 대지 않았으며 여기에 繡圓翟을 51개 혹은 36개 놓은 것이었다. 補는 王妃는 五瓜龍, 王世子嬪은 四瓜龍을 수 놓아 양 어깨, 가슴과 등에 붙였다. 이 제도는 明의 翟衣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明의 翟衣에는 없는 補, 霞帔, 裳, 別衣, 內衣, 面紗등이 포함되어 우리나라의 國俗化된 양식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문헌을 위주로 朝鮮朝 王妃服制와

그 형태를 살펴 본 결과 朝鮮後期の 翟衣制는 明이나 大韓帝國의 것과는 달리 國속化된 형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翟衣의 구체적 형태는 밝혀지지 않아 大衫 背子등에 관한 研究가 進行되어져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昭顯世子 「都監儀軌」, 奎章閣圖.
- 仁祖莊烈后 「嘉禮都監儀軌」, 奎章閣圖書.
- 顯宗明聖后 「嘉禮都監儀軌」, 奎章閣圖書.
- 肅宗仁敬后 「嘉禮都監儀軌」, 奎章閣圖書.
- 肅宗仁顯后 「嘉禮都監儀軌」, 奎章閣圖書.
- 景宗端懿后 「嘉禮都監儀軌」, 奎章閣圖書.
- 肅宗仁元后 「嘉禮都監儀軌」, 奎章閣圖書.
- 眞宗孝純后 「嘉禮都監儀軌」, 奎章閣圖書.
- 莊祖獻敬后 「嘉禮都監儀軌」, 奎章閣圖書.
- 英祖貞純后 「嘉禮都監都廳儀軌」, 奎章閣圖書.
- 正祖孝懿后 「嘉禮廳都廳儀軌」, 奎章閣圖書.
- 純祖純元后 「嘉禮都監儀軌」, 奎章閣圖書.
- 文祖神貞后 「嘉禮都監儀軌」, 奎章閣圖書.
- 憲宗孝顯后 「嘉禮都監儀軌」, 奎章閣圖書.
- 哲宗哲仁后 「嘉禮都監儀軌」, 奎章閣圖書.
- 高宗明聖后 「嘉禮都監儀軌」, 奎章閣圖書.
- 純宗純明后 「嘉禮都監儀軌」, 奎章閣圖書.
- 純宗純宗妃 「皇太子嘉禮都監儀軌」, 奎章閣圖書.
- 高光林(1973), 「翟衣에 관한 研究」, 「論文集」, 第 8 輯(仁川, 仁川教育大學), pp. 243~78.
- 金東旭(1979), 「增補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亞細亞文化社.
- 白英子(1977), 「嘉禮都監을 통해 본 宮中法服의 變遷」, 「韓國衣類學會誌」, 1卷2號, pp. 13~22.
- (1978), 「嘉禮都監을 통해 본 法服(翟衣)의 附隨服飾과 衣櫛(露衣·長衫)에 관한 研究」, 「韓國衣類學會誌」, 2卷 1號, pp. 17~27.
- 「국역 악학체법」, 서울: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80.
- 柳喜卿(1975), 「韓國服飾史研究」, 서울: 이대출판부.
- (1976), 「翟衣考」, 「家政大學教 論文集」, 서울: 이대출판부.
- 李京子(1977), 「嘉禮都監儀軌의 服飾研究」, 「服飾」創刊號(韓國服飾學會), pp. 21~48.

ABSTRACT

A STUDY OF SACREDOTAL ROBE FOR QUEEN IN CHO-SUN DYNASTY

by HONG, NA YOUNG
RYOU, HI KYUNG

Sacredotal robe(法服) means full court dress. We can't know about the shape of sacredotal robe before Dae-Han Empire(大韓帝國) since there are no remains of it. The study of sacredotal robe for queen have also been made centering around the sacredotal robe granted from Ming(明) dynasty and the system of Juck-Eui(翟衣) in Dae-Han Empire.

In this thesis I tried to study about the sacredotal robe for queen from King Gong-Min(恭愍王) of Koryeo(高麗) dynasty to the close the Cho-Sun(朝鮮) dynasty by investigating the Literature of Cho-sun Dynasty Chronicles(朝鮮王朝實錄), Ga Rae Do Gam Eui Gue(嘉禮都監儀軌), Sang Bang Jung Rae(尙方定例), Gook Hon Jung Rae(國婚定例), Sok-Orae Eui-Bo(續五禮儀補), and Dae Myung Whe Jeon(大明會典).

The first documents on sacredotal robe for queen is regarded as that in the period of King Gong Min., which says that Chil Whee Gu Bong Gwan(七輦九鳳冠) and Juck Eui of the 9th grade had been given from Ming dynasty. The sacredotal robe for queen in Cho-sun had been granted from Mingdynasty since the 3th years of King Tae-Jo(太祖) to the 3th years of King In-Jo(仁祖). They were Ju Chui Chil Juck Gwan(珠輦七翟冠), red Dae Sam(大衫), Bae Ja(褙子) embroidered with pheasants on blue silk, and ivory flat baton(笏), which belonged to the court dress for the first class of court lady.

When Qing(清) dynasty succeeded to Ming dynasty, Cho-sun adopted the system of Juck Eui which had it's origin in the system of Ming, denying to comply with Chung. But as a matter of fact, the system of sacredotal robe for queen actually used was one which were different from the dress system of Ming and converted into our national ways.

In the latter period. of Cho-sun, the system of Bae Ja or Juck Eui were used together until the period of King Young Jo(英祖), and the system of Juck Eui which was written in Gook Hon Jung Rae was continually used from King Young Jo to the close of Cho-sun. It was composed of Juck Eui, Beol Eui(別衣), Nae Eui(內衣), Pe Sool(蔽膝), Dae Dae(大帶), HaPi(霞帔), Sang(裳), Ok Dae(玉帶), Pae Ok(佩玉), Gue(圭), Mal(襪), Suk(舄), and Myun sa(面紗), The headdress was used in our own ways, not complying with Juck Gwan(翟冠).

The color of Juck Eui was red for queen, deep blue for the consort of the crown prince. The color of Juck Eui in DaHan Empire was deep blue, different from that of Juck Eui in Cho-sun. Bo(補) for queen was embroidered with dragon with five claws and the one for the consort of crown prince with dragon with four claws. The back length of Juck Eui

was longer than front about 28cm (1尺), and the front opening was straight down. 51 motifs of a brace of pheasants which were similiar to Bong(鳳) were embroidered on Juck Eui for queen. But we can't find out whether there 31 or 51 on Juck Eui for the consort of the crown prince.

The system shows independant aspects, because there are Bo, Myun Sa, Sang, Ha Pi, Beol Eui, and Nae Eui which were not found in the system of Ming.

As mentioned above, I have studied on the sacredotal robe for queen. But we can't guess the detail of sacredotal robe for queen, because there are no remains at all. Therefore I expect more study on this.